



접경지 타이완과 오키나와의 상호인식, 그리고 동아시아
- 2018년 고등학교 역사교재를 중심으로

Mutual Recognition of the Okinawa and Taiwan borderland and East Asia

저자 (Authors)	신주백 Sin, Ju-back
출처 (Source)	아시아문화연구 47 , 2018.8, 195-224 (30 pages) Asian Cultural Studies 47 , 2018.8, 195-224 (30 pages)
발행처 (Publisher)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525496
APA Style	신주백 (2018). 접경지 타이완과 오키나와의 상호인식, 그리고 동아시아. 아시아문화연구 , 47, 195-224.
이용정보 (Accessed)	220.149.***.50 2018/09/25 19:4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접경지 타이완과 오키나와의 상호인식, 그리고 동아시아*

- 2018년 고등학교 역사교재를 중심으로

신 주 백**

- I. 머리말
 - II. 분석대상 소개와 의미
 - III. 화구(華球)관계에서 화일(華日)관계로 : 대만 표착 류구인 살해사건·모단사사건
 - IV. 지배·피지배관계 : 자기중심적인 식민주의 인식 속에서 오키나와·타이완
 - V. 화일(華日)관계에서 대일(臺日)관계로 : 센카쿠제도·다오위다오
 - VI. 맺음말
-

I. 머리말

다면체의 사물은 보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 달리 느끼고 설명할 수 있다.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중심에서 역사를 판단하는 사람과 주변에서 역사를 느끼는 사람은 같은 사건과 현상을 이해하는 폭과 깊이 그리고 방향이 다를 수 있다. 중심의 대척점에 위치한 주변에서 역사를 보면, 중앙의 관점을 전복시키기는 매우 쉽지 않지만, 경계에 있어 모호하고 중층적이며 혼종적인 주변의 특징으로 인해 긴장되면서도 자유롭게 현상을 이해할 수 있거나 지배적인 관점을 흔들어 틈새를 만들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361-A00003)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지역으로서 동북아시아(동아시아)를 보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¹⁾ 동북아 지역의 중심은 한중일 3국이고, 타이완은 그 주변에 있는 국가이다.²⁾ ‘Taipei China’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타이완은 중국으로부터 ‘지방정부’처럼 취급받으며 국가로서 지위가 언제나 불안정하다. 이런 타이완에 가장 인접해 있는 곳이 오키나와이다. 오늘날 일본 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한 일본의 변방 오키나와는 주일미군의 3/4가량이 집중해 있을 만큼 미일관계의 모순을 떠안은 장소로서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는 공간이다.

오키나와와 타이완은 동북아의 변방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통해 연계하고 있으므로 오랜 교류의 역사가 있다. 물론 서로 빈번하고 활발하게 왕래했다거나, 양자가 주도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풀어갔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³⁾ 가령 양자의 관계는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양 루트인 플라카해협-필리핀-타이완-큐슈로 이어지는 동서축에서도 빗겨나 있었다. 그래서 타이완과 오키나와의 충대관계사(沖臺關係史)라는 측면의 연구가 주목을 끌지 못한 측면도 있다. 두 곳의 관계사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는 한국, 그리고 당사자임에도 양적으로도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는 타이완과 오키나와에서의 연구 동향이 이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런 가운데서도 매우 선구적인 마타요시 세이키요(又吉盛清)의 책과 21세기 들어 ‘충대관계’(沖臺關係)에 초점을 두고 꾸준히 연구를 지속해 온 추더란(朱德蘭)의 성과가 있다.⁴⁾ 마타요시 세이키요는 일본이 타이완을 식민지로

-
- 1) 필자는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를 구분하겠다. 동북아시아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 달리 말하면 동해, 황해, 동중국해로 연결된 공간과 국가 단위로서 몽골, 북한을 포함하는 공간이다. 동아시아는 여기에 오늘날 ASEAN의 회원국에 동티모르를 포함하는 공간까지를 염두에 두겠다. 국가 수로 따지면 모두 17개국이 되겠다.
 - 2) 이 글에서 필자는 대만(臺灣)을 지명이자 국가로서 읽을 때 ‘타이완’, 타이완의 고등 학교 역사교과서를 지칭할 때 ‘대만사(臺灣史)’로 호칭하겠다.
 - 3) 필자는 경계, 분할선, 변경, 주변 등의 용어 대신에 글의 제목처럼 ‘접경지’란 용어를 사용하겠다. 이 글 ‘제III장’에서 다루는 1872년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류큐는 독립국가였고, 1951년부터 1971년은 일본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 4) 又吉盛清, 『大日本帝国植民地下の琉球沖繩と台湾』, 同時代社, 2018 ; 朱德蘭, 『臺灣沖繩交流史論集』, 遠流出版公司, 2016. 마타요시의 책은 『台湾支配と日本人』(同時代社,

지배할 때 오키나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주덕란은 관광, 노무동원, 황태자방문 등 1945년까지 여러 교류의 경험들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각자가 상대방에 대한 서로의 기억을 비교한 연구는 없다.

그런데 타이완과 오키나와 사람이 직접 관계된 역사 가운데는 동북아 지역의 중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사례가 여럿 있다. 이 글에서는 오키나와와 타이완에 거주하는 사람이 직접 교류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큰 영향을 준 역사적 경험을 사례로 들어 각자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비교하며 검토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총대관계’에 관한 상호인식이 1871년을 기점으로 ‘화구관계’(華球關係)에서 ‘화일관계’(華日關係)로, 다시 1895년 지배와 피지배관계로, 이어 1972년부터 ‘대일관계’(臺日關係) 속에 종속되어 있음을 해명하겠다.⁵⁾

함께 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역사와 환경에 영향을 받아 각자의 맥락에서 달리 기억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기억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 세계화 시대라는 21세기에 한국과 일본이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매년 상대를 비판하며 싫어하는 감정이 깊어지는 경우가 보기 일 것이다. 서로 다른 기억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의 하나가 특정한 역사 대상을 ‘연동하는 동아시아’라는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견고한 중앙중심적인 시선에 파열음을 내는 접근이다. 오키나와와 타이완의 관계사가 갖는 의미를 되새기면 일중관계사를 다시 생각하고 대만사의 위치를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지역으로서 동아시아의 근현대사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자국사에서 말하는 역사인식이 채우지 못하는 빈공간을 확인함으로써 중앙의 시선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여지, 달리 말하면 시선의 상대화에 길을 터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

1994)을 수정하고 새롭게 추가하여 간행한 연구서이다.

5) 근현대 ‘총대관계’의 역사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달리 표현한 이유는 타이완과 오키나와의 지위가 청·중국과 일본에서 그때그때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오키나와의 경우 류큐왕국(琉球王國)→오키나와현(沖繩縣), 타이완의 경우 ‘화외(化外)’의 타이완→일본의 타이완→중화민국의 타이완으로 바뀌었다.

글의 두 번째 목적이다.

필자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 현재 타이완과 오키나와의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교재의 내용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겠다. 기억의 문제를 다룰 때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데 학교교육에서 사용하는 교재만한 공정한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왜냐하면 교과서는 각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접하는 대상이면서 그 사회나 국가에서 가장 널리 사회화한 기억을 담아내고 있어 관계 인식의 일반성을 추출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분석 대상이다.

교과서를 다룬다고 해서 필자가 임의로 분석 내용을 선정하지 않겠다. 타이완과 오키나와 사람이 함께 연루된 역사적 경험 가운데 교과서에서 직접 다루고 있는 소재만을 분석하겠다. 그래서 이 글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일어난 1871년 대만포착유구인살해사건(臺灣漂着流球人殺害事件) 또는 모단사사건(牡丹社事件)을 ‘제Ⅲ장’에서 검토하고, 이어 ‘이민현(移民縣)’이라고도 불렀던 오키나와현 출신자와 식민지 타이완과의 관계에 관한 기술을 통해 근대 ‘충대관계’의 기억을 ‘제Ⅳ장’에서 검토하겠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현재 ‘대일관계’ 또는 ‘중일관계’의 가장 민감한 현안이기도 한 센카쿠제도(尖閣諸島) 또는 다퇴다오(釣魚島)에 관한 기술을 통해 실종된 ‘충대관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을 언급하겠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제Ⅱ장’을 별도로 설정하여 분석대상을 소개하겠다. 대만사를 취급하는 타이완의 대만사 교과서, 곧 ‘역사1’은 ‘국가사’에 해당하는데 비해, 오키나와의 역사에 관한 교과서는 ‘지역사’ 부교재이다. 전자는 10종이고 후자는 1종에 불과하지만 비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이유를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이완의 역사교과서는 매우 복잡하고 격렬한 사회갈등의 과정에서 산출된 교재로서 이를 간략하게라도 해명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정치적 함의를 ‘충대관계’의 측면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분석대상 소개와 의미

이 글에서 분석하려는 대상은 2018년 현재 학교현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교재이다. 그럼 먼저, 타이완의 고등학교에서 사용중인 대만사 교과서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 일본과 달리 타이완의 중학생이 정규 학교교육에서 대만사를 배우기 시작한 때는 1997년이 처음이었다. 타이완 출신으로 중국국민당 소속인 리덩후이 총통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이다. 그때 사용한 교과서가 중학생용 『인식대만(역사편)』이다.⁶⁾ 고등학교생은 이보다 더 늦어 95잡강(暫綱)에 따라 제작한 『역사』 1~4책 가운데 제1책인 ‘대만사’ 교과서로 2006년부터 배웠다. 그때부터 타이완의 고등학생은 중국사 교과서에서 어쩌다 언급된 대만사가 아니라 타이완의 역사만을 온전히 서술한 대만사 교재를 가지고 제1학년 1학기에 배우고 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역사』 제2책은 온전히 중국사만 언급하고 있고 학생들은 제2학기 때부터 배우고 있다.

그렇지만 타이완에서 대만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뜨거운 논쟁거리다. 지금도 정치와 사회의 영역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논쟁이 언제 끝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101과강(課綱), 곧 한국으로 치자면 2012년부터 적용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한 교과서를 사용할지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⁷⁾ 왜냐하면 중국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역사관을 교과서에 더 반영하고자 104과강을 만들어 실시하자, 여기에 반대하는 대학생이 자살하고 시민운동차원에서 광범위한 반대운동이 벌어지는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격렬하면서 폭넓은 논쟁이 타이완사회를 휘감았기 때문이다. 마치 교학사판 한

6) 이에 관한 소개는 河世鳳, 『臺灣歷史의 망각과 기억-중학교 역사교과서 ‘認識臺灣’의 認識』, 『釜山史學』 38, 2000 참조.

7) 자세한 사항은 신주백, 『記憶 葛藤과 ‘臺灣人’으로서 正體性 찾기-高校 ‘臺灣史’ 教科書 問題를 中心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74, 2018 참조.

국사 교과서 또는 국정교과서 문제가 한국사회의 갈등의 한축을 이루었듯이, 타이완에서도 한국보다 더 했으면 더했다고 볼 수 있는 갈등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있었다.

국정교과서를 대다수의 한국사 연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만들었던 한국처럼, 마잉주정권도 대만사 연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과강을 개편하는 등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이며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중국국민당이 2016년 1월 치러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진보당에 패배하면서 권력을 내 주었다. 입법원을 장악한 민주진보당은 2016년 4월 29일 104과강, 일명 미조과강(微調課綱)을 철폐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여 찬성 71표, 반대 15표로 통과시켰다.⁸⁾ 5월 20일 새로 총통에 취임한 차이잉원은 바로 다음 날, 미조과강을 즉각 폐지하고, 2016년 9월 제1학기부터 101과강에 입각하여 제작한 역사교과서를 다시 사용한다고 발표하였다.⁹⁾ 104과강 교과서는 1년만에 사용이 중지된 것이다. 행정원(行政院)은 5월 31일자 교육부령으로 미조과강을 공식 폐지하였다.¹⁰⁾ 이로써 미조과강을 둘러싼 타이완사회의 논란은 일단 끝났다.

2018년 현재 타이완의 고등학교 1,2학년생은 101과강에 따라 제작한 역사교과서로 수업하고 있다. 교과서는 현재의 규정대로 한다면 2019년 7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18년 4월 현재 101과강에 따라 제작한 교과서 가운데 검정을 통과한 대만사 교과서는 10종이다. 그중 교사들이 학교별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7종이다.¹¹⁾

8) http://www.mdnkids.com/news/search_detail.asp?serial=97803(『立院撤微調課綱 教部：交課審會決議』, 『國語日報』 2016.4.30. 검색일: 2018.5.20.)

9) <http://www.setn.com/News.aspx?NewsID=148605>(『教育部長潘文忠廢止微調課綱 下學期將使用舊版本』, 『三立新聞網』 2016.5.21 10:54:00. 검색일: 2018.5.20.); <http://news.ltn.com.tw/news/life/paper/991988>(『最快後天 新教長廢止黑箱課綱』, 『自由時報』 2016.5.21. 검색일: 2018. 5.20.)

10) <http://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160531006413-260407>(『終於！政院公告 微調課綱正式廢止』, 『中國時報』 2016.5.31 21:03. 검색일: 2018.5.20.)

11) 전화도서, 태우출판, 남일서국, 한림출판, 용등문화, 강희문화, 삼민서국. <https://www.naer.edu.tw/files/15-1000-10956,c255-1.php?Lang=zh-tw>(國立教育院, 「107學年度普通高級

7종의 교과서 가운데 삼민서국, 남일서국, 한림출판에서 발행한 교과서가 독립파와 민주진보당 성향의 역사인식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도 세 출판사의 교과서를 주로 참조하겠다. 타이완을 독립국가로 만들려는 민주진보당이 중국사의 일부로서 대만사가 아니라, 타이완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타이완의 대만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17년 12월 현재 타이완인 10명중 9명 이상은 자신이 타이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¹²⁾ 따라서 타이완인의 대만사에 주목하면 ‘화일관계’에서 ‘대일관계’로 전환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대관계’의 현주소를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국민당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 타이완에서 이를 대변하는 대만사 인식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필요에 따라 중국국민당에 우호적인 대만사 교과서의 하나인 사기(史記)문화사업유한공사의 교과서를 참조하겠다.

다음으로 오키나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사 교재를 보자. 오키나와현 교육위원회에서 자신의 지역사 교재를 공식 지정한 책은 없다. 하지만 2011년까지 오키나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재직했던 아라시로도시아키(新城俊昭)가 2003년 『고등학교 류큐·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沖繩: 編集工房東洋企画)를 출판하였다. 이 책은 오키나와 지역사에 관해 학교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첫 부교재였다.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책은 출판되자마자 오키나와현에 있는 30개 학교에서 역사 부교재로 채택하여 5천부가 단기간에 팔릴 정도였다.¹³⁾ 이후에도 부교재에 대한 호응은

中學教科用書一覽表 第一學期用書更新]. 검색일: 2018.5.20.)

3종이란 2013년 통일파로 국민당 성향인 장야중(張亞中)을 비롯해 정치학자 등이 출판사를 급조하여 만든 사기문화(史記文化), 극곡문화(克穀文化), 그리고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화흥문화(華興文化)의 교과서를 말한다.

12) <https://esc.nccu.edu.tw/course/news.php?Sn=166>(국립정치대학 선거연구중심, 검색일: 2018.4.20.)

13) <https://ja.wikipedia.org/wiki/%E6%96%B0%E5%9F%8E%E4%BF%8A%E6%98%AD>(『新城俊昭』. 검색일: 2018.6.10.)

계속 이어져 신정판(2010), 3정판(2017)을 발행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편자(編者)도 오키나와역사교육연구회로 바뀌어 공식성을 더 하였다. 또 ‘역사를 탐구하다’라는 2쪽 짜리 코너 한 개와 ‘근대화의 파도는 어떻게 밀려왔는가’라는 주제의 본문 2쪽을 추가하였다.¹⁴⁾ 수정 보완한 내용은 ‘제4장 류큐왕국에서 오키나와현으로’라는 부분이었다. 오키나와 지역이 근대로 전환되는 과정을 더 보강했다고 볼 수 있겠다. 필자는 2017년에 발행된 제3정판을 분석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데 『고등학교 류큐·오키나와 역사와 문화』는 학교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교재가 아니다. 부교재일 뿐이다. 그래서 오키나와의 역사만을 학생들에게 집중 전달하는 구성을 하고 있어 접경지 타이완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교재이기는 하지만, 오키나와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모두 배워야 하는 교재는 아니다. 대학입시와도 관계가 없는 교재이다. 따라서 타이완의 대만사 교과서와 위상이 다르다.

필자는 부교재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자 2018년 현재 일본의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사B』 교과서의 내용을 참조하겠다. 이렇게 하면 필자가 분석하려는 주제에 대한 지역의 역사인식과 중앙의 관점을 비교할 수 있어 흥미로운 분석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제V장’의 분석 때 ‘화일관계’에서 ‘대일관계’로 전환한 이후 왜소해진 ‘총대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필자는 『일본사B』 교과서를 대만사 교과서와 주로 비교하지 않고 부교재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5개 출판사에서 발행한 9종의 『일본사B』 교과서 가운데 72.5%라는 압도적인 채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아마카와출판사의 교재들을 사용하겠다.¹⁵⁾

14) 신정판과 비교했을 때를 말한다. 모두 4쪽이 더 늘었다.

15) 日本出版労働組合聯合會, 『教科書レポート』 60, 2017, p.87. B타입 교과서의 경우 모두 539,000책이 채택되었다. 『일본사A』의 경우 5개 출판사에서 8종을 발행하고 있지만, 필자는 437,000책이 채택된 A타입 교과서의 원래 취지와 구성을 고려할 때 타이완의 대만사 교과서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야마카와출판사에서 발행한 3종의 B타입 교과서 가운데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일본의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상설 일본사B』를 주로 분석하겠다.¹⁶⁾

그럼 이제 ‘충대관계’를 반영하여 크게 세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오키나와와 타이완 사람이 직접 접촉한 사례를 하나씩 들어 상호 기억을 검토해 보자.

Ⅲ. 화구(華球)관계에서 화일(華日)관계로: 대만 표착 류구인 살해사건·모단사사건

1868년 명치유신 이전까지 류큐왕국과 타이완에 거주하는 사람 사이의 교류는 가고시마 등 본토와 류큐왕국 사이의 교류에 비해 활발한 편이 아니었다.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가 타이난을 중심으로 교역을 하던 기간(1624~1662), 그리고 이들을 무력으로 물리친 정성공 등이 청의 군대에 무너진 1683년까지 통치하던 ‘정씨치대(鄭氏治臺)’ 기간까지, 타이완과 막부와의 무역에서 류큐는 중심이 아니었다. 설탕과 쌀, 비단, 약재 등의 수출품과 구리, 납 등 무기제조에 필요한 재료가 타이완측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품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1633년 막부는 실질적인 쇄국정책을 취하고, 청은 해금정책을 실시했으므로 이즈음부터 사무역(私貿易)이 매우 어려웠다. 타이완의 대만사 교과서들에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언급하고 있지만, 오키나와의 부교재에는 관련한 서술이 없다.

류큐와 타이완 사람의 직접 접촉과 새로운 관계 설정은 1871년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다. 그 경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미야코의 배가 태풍을 만나

16) 일본에서 『상설 일본사B』는 일본 역사학계의 핵심인 동경대학 문학부 사학과 교수들이 핵심 필진이다. 한때 일본사회에서는 이 교재를 ‘성서’라고까지 불렀다.

조난을 당해 표류하다 타이완에 도착하였다. 승선자 66명 가운데 54명은 현지의 ‘선주민’에게 살해당하였다.¹⁷⁾ 이후 청일은 외교협상도 진행하였고, 1874년 일본군이 모단사(牡丹社)를 공격한 적도 있었다(<그림 1> 참조). 오키나와의 부교재는 이 사건을 ‘대만 표착 류구인 살해사건’이라 표현하고, 대만사 교과서들은 ‘모단사사건’이라 부르고 있다. 부교재가 사건 자체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마무리까지의 과정을 타이완의 대만사 교과서 가운데 하나인 한림출판(翰林出版)의 교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1절 외력(外力) 충격과 청조의 대응

1. 타이완 새로운 국면의 도래
2. 외교에 관련된 사건
- (3) 모단사사건

1871년(동치10년) 류큐 선적의 배 두 척이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 타이완 남부의 팔요만(八瑤灣)(현 병동 만주(屏東 滿州)) 일대에 다다랐다. 일부의 선원은 해안에 상륙한 후 배만족(排灣族)부락에서 살해당했다. 일본이 이 기회를 틈타 청정부에 죄를 물었다. 청정부는 타이완 번지(番地)가 화외(化外)의 땅이라서 청제국이 관할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일본은 이를 이유로 타이완출병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1874년(동치13년)에 일본이 파병하여 모단사를 공격하였다. 모단사가 어쩔 수 없이 투항하였다. 일본군이 계속 점령을 확대시키고 아울러 장기 주둔할 식민을 계획하였다. 청정부는 일본이 타이완을 침략하는 행동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복주(福州)의 선정대신(船政大臣) 침보정(沈葆楨)을 흠차



<그림 1> ‘모단사’의 위치와 일본군 공격로

출전 : 林能士 編著, 『歷史』 1, 南一書局, 2017, p.94.

17) ‘선주민’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고, 타이완에서는 ‘원주민’이라 호칭하고 있다.

대신(欽差大臣)으로 삼아 타이완에 파견하였다. 동시에 타이완을 침략한 일본 군 역시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아 학질의 고통을 겪었다.

결국 영국의 조정 아래 양쪽은 화약(和約)을 체결하고 일본군은 타이완에서 철수하였다. 화약 중에는, 청정부는 위로금과 일본군비를 보상하고, 아울러 일본 류큐선원이 살해당하고 출병한 행동이 “보민의거(保民義舉)”임을 승인하게 하였으므로 류큐가 일본의 소유임을 간접적으로 승인하였다. 일본의 타이완 침략은 청정부로 하여금 “번계(番界)”문제에 직시하기 시작하게 하였고, 타이완 통치를 소극에서 적극적으로 전환시켰다.

.

3. 청정부 타이완 통치정책의 전환¹⁸⁾

류큐포류민의 살해사건으로부터 촉발된 일련의 전개과정에 대해 타이완의 대만사 교과서와 오키나와에서 발행한 부교재는 매우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우선, 대만사 교과서는 일본군의 행동에 더 초점을 두고 일본군의 출동을 ‘침략’이라 규정하였다. 사건의 명칭도 일본군이 공격한 모단사를 들어 모단사사건이라 하였다. 이에 비해 부교재는 ‘류큐인’의 ‘살해사건’에 초점을 두고 설명했으며, 일본군의 움직임은 ‘출병’으로 표현하여 침략성을 순화시켰다.¹⁹⁾

사건이 미친 영향에 대해 대만사 교과서는 한림출판의 교과서처럼 소극적 타이완정책에서 적극적 타이완정책으로 청정부의 태도가 바뀌어 갔음을 공통되게 언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부교재는 명치정부가 사건을 이용하여 류큐를 일본의 영토로 확정하는 한편, 타이완 ‘진출’을 시도했다고 기술하고 있다.²⁰⁾ 비록 일본 역사교과서의 편수용어인 ‘타이완출병’이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부교재는 일본의 정치적 목적을 뚜렷이 제시하는

18) 吳學明 主編, 『普通高級中學 歷史』第1冊, 翰林出版, 2017, pp.92-93.

19) 일본사의 이러한 인식은 1927, 1928년 일본군의 제1, 2차 산동침략을 산동출병이라 부르는 등 일본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沖繩歷史教育研究会 編, 『三訂版 高等学校 琉球・沖繩の歴史と文化』, 編集工房 東洋企画, 2017, p.86.

한편, 침략성을 조금이라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각자 자기 역사의 맥락에서 충돌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교재가 타이완출병에 대해 소극적으로라도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아마카와출판사의 『상설 일본사B』는 “청국이 현지 주민의 살상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군인과 사족의 강경론에 밀린 정부는 1874(명치7)년 타이완에 출병하였다(타이완출병)”고 기술하고 있어, 애초부터 침략 의도가 없었으며 출병의 원인을 청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²¹⁾ 더구나 이 문장 바로 뒤에 류큐처분에 관해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시간 순으로 말했을 뿐 연관성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마카와출판사의 『상설 일본사B』는 1871년부터 1879년까지의 역사과정이 자연스럽게 합리적이었다는 역사상을 학생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로서 중앙 중심적인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다.

부교재와 타이완 및 일본의 자국사 교과서를 비교하면, 오키나와의 부교재는 ‘충대관계’가 ‘화외관계’에서 ‘화일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타이완의 대만사 교과서와 일본의 일본사 교과서는 관계의 전환에 대한 시야가 없다. 전자는 청정부의 타이완정책에 대한 태도의 전환에 초점을 두었고, 후자는 명치정부의 침략성에 주목하지 않으며 군대출동의 원인을 청정부에 떠넘기는 태도를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랐지만, 양자 모두 자기 중심적인 역사해석에 머물며 관계의 성질이 바뀌어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지역사를 고려하지 않는 자국사 교과서가 내포한 한계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더 나아가 세 교재 모두에서 드러난 공통된 한계는 1871년의 사건으로 일본정부가 국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중국과의 외교적인 점접시대에서 구체적인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음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사실 일본과 청이 1871년에 청일수호조규를 체결했지만, 구체적인 점접 지역에서의 관계 설정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 그런데 1871년 사

21) 老川慶喜 외 10인, 『詳説 日本史B 改訂版』, 2017, 山川出版社, 2017, p.273.

건을 계기로 남방 쪽에서 청과의 관계, 달리 말하면 조규를 계기로 책봉-조공관계라는 틀을 허문 명치정부가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방향이 류큐의 일본 영토화였다. 이어진 조선에 대한 접근이 이를 대외적으로 적용한 행위라면, 1879년 폐번치현(廢蕃置縣)은 국내차원의 결말이었다. ‘충대관계’가 접경지에서의 ‘화구관계’에서 국가 대 국가의 ‘화일관계’로 전환된 것이다.

1871년 사건 이후의 전개과정은 이러한 전환을 ‘연동하는 동아시아’의 측면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청정부가 적극 대만정책으로 전환한 선택은 질서 변동에 따른 대응이었지, 청 내부 사정이 1차 선택 요인이었거나, 타이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을 자발적으로 반성한 결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1874년 5월의 타이완침략으로 타이완의 일부까지 영토화하려 했던 일본의 움직임은 청을 중시하는 서구 열강의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즈음 명치정부가 몰두한 곳이 조선이었다. 타이완침략에 이어 1875년 운요호사건을 일으키고 이듬해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한 일본의 일련의 움직임은 1871년 사건을 타이완에 이어 확장적으로 표출한 국외차원의 결말이었다. 그 결말까지의 일관된 숨은 맥락은 기존의 책봉-조공관계라는 지역 질서에 일본이 구체적인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하며 지역 구도에 현상변경을 시도하여 성공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때부터 오키나와와 타이완의 관계는 접경지이기에 가능했던 일상의 자연스러운 관계로부터 국가 대 국가의 관계, 동아시아 근대 국제관계 속에 귀속된 변경 대 변경의 관계로 바뀌었음을 함축하기 시작하였다. 달리 말하면 양자관계와 연동하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함께 보아야 1871년 사건으로부터 1874년의 처리과정, 그리고 그 파동의 연속은 동북아에서 책봉-조공질서의 해체와 더불어 일본의 침략성까지를 이어 볼 수 있는 것이다.

IV. 지배·피지배관계: 자기중심적인 식민주의 인식 속에서 오키나와·타이완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타이완을 식민지로 만들어 1945년 10월 24일까지 통치하였다. 일본인은 일본의 첫 해외 식민지인 타이완에서 50년 동안 지배자로서 특권을 누렸다. 식민지 기간은 ‘화일관계’가 해체되었고, 그 관계의 하위에 존재해 왔던 ‘충대관계’, 곧 타이완과 오키나와 사이의 동등하면서도 상호성 있는 관계까지 해체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로지 지배와 피지배관계만 남았음을 말한다.

이에 따라 타이완과 일본의 자국사 교과서는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과 분량에 현격한 격차를 노출하고 있다. 타이완의 대만사 교과서는 식민통치기간을 ‘일본통치시기’, ‘일치대만’(日治臺灣), ‘일본식민통치시기’, ‘일거시기적 식민통치’(日據時期的殖民統治) 등으로 규정하며 50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²²⁾ 다양한 규정은 식민지 시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다른 역사관을 드러내는 방식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자국사의 일부로 설명하는데 굳이 일본의 어느 현 출신이라는 내용까지 서술하지 않은 점은 같았다. 비록 교과서 분량에서 대략 1/4정도를 할당하여 이 시기를 기술하고 있지만

22) ‘일본통치시기’ - 한림출판 남일서국 용등문화, ‘일치대만’ - 삼민서국 / ‘일본식민통치시기’ - 진화 태우출판, ‘일거시기적식민통치’ - 사기문화.

앞 출판사 교과서의 두 가지 시대 규정이 일본의 ‘통치’를 말했다면, 뒤 출판사 교과서의 두 가지 시대 규정은 ‘식민’을 더 강조한다. 전자는 명, 청, 중화민국처럼 외부인이 와서 통치한 역사와 다르지 않다는 역사관을 깔고 있다면, 후자는 명, 청, 중화민국과 달리 일본은 이민족이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는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다. 전자가 민주진보당에 우호적이 역사관이라면, 후자의 역사관은 중국국민당에 가깝다. 그래서 후자를 취하는 교과서는 타이완인의 항일운동도 중국인이 전개한 항일운동의 일부로 본다.

첨언하자면, 타이완의 교육부가 일치(日治)와 일거(日據) 모두를 사용한다고 결정했으므로 교과서의 필자들이 어느 용어를 사용하는 교과서 편수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국민당이 통치할 때 행정 계통의 공식 용어는 ‘일거’였다. 『公文處理行政院統一使用日據』, 『臺灣時報』發佈日期: 2013-07-23. <http://www.twtimes.com.tw/?page=news&nid=344890> (검색일: 2018.6.12.)

‘충대관계’는 없는 것이다. 식민과 피식민은 지배 민족 대 피지배 민족의 구도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교과서는 이와 다른 이유에서 ‘충대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사B』 교과서는 청일전쟁의 전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시모노세키조약의 결과 명치정부는 “도민(島民)의 완강한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타이완 통치에 주력했다고 단 세 줄로 언급하고 있다.²³⁾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서술이 없다. 마치 일본제국의 바깥, 곧 화외(和外)에 존재하는 타이완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근대가 식민지 때문에 지속할 수 있었다는 진실을 회피하는 접근방식을 통해 식민지의 역사를 일본근대사와 관련한 기억에서 크게 왜소화시키거나 누락하려는 태도이다.

그러나 오키나와에서 발행한 부교재는 이와는 조금 달랐다. 부교재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체 7장 가운데 ‘제5장’에서 ‘15년전쟁과 오키나와’라는 주제를 특별히 집중 기술하고 있다는데 있다. 1945년 오키나와전이란 매우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1868년 명치유신 또는 1871년 류큐번(琉球藩) 설치 때부터 1945년까지를 하나의 ‘장’에서 다루지 않고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의 오키나와사를 ‘제5장’으로 분리 독립시킨 데서도 알 수 있다. 또 제5장의 28쪽 분량 가운데 18쪽을 ‘4. 오키나와전은 왜 일어났는가’에 할애하고 있는 편집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5장에는 만주와 타이완으로 오키나와인의 이민문제를 다룬 2쪽 분량의 ‘13. 역사를 탐구한다 : 오키나와현에서의 만주이민과 중국 잔류 일본인’이란 제목의 독립된 코너가 있다. 코너에는 만주국 지배에 일익을 담당한 2,350명의 개척이민과 60여 명의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의 오키나와인에 관해 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편집구성과 서술은 15년전쟁의 동원사 속에서 만주이민문제를 다루며 이주부터 귀환까지의 ‘고난’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13번 주제의 코너에는 1/2쪽 정도의 분량에 부록처럼 ‘타이완에

23) 老川慶喜 외 10인, 앞의 책, p.291.

서 일어난 무사사건(霧社事件)과 오키나와출신자의 관계'라는 제목의 별도 박스가 있다. 부교재는 여기에서 오키나와인이 타이완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 압축하여 설명하는 가운데 타이완의 지배와 탄압에 가담한 오키나와인에 관해 특별히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일청전쟁 후, 타이완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1890년 후반에는 오키나와로부터도 많은 교원과 순사, 공무원, 출가(出稼)한 인부(人夫) 등이 직업을 찾아 타이완으로 건너갔다. 타이완총독부는 오키나와 출신의 교원과 순사를 황민화의 담당자로 환영하고 위험한 산악지대로 보냈다.

(……) 타이완 중앙부의 산악지대에 무사(霧社)라고 부르는 고산족이 사는 집락(集落)이 있다. 1930년 10월 11집락 가운데 6집락의 청년남자 300여명이 봉기하였다. (……) 130여명의 일본인이 살해당하였다. 타이완총독부는 토벌대를 조직하고 비행기를 동원한 폭탄공격과 독가스 등으로 보복하였다.

(……) 토벌대에는 오키나와 출신 순사도 가담하였다.

고산족 봉기의 원인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며 학살과 폭행 사건 등 비인도적인 행위에 있었지만, 총독부는 이것을 수수(首狩)하는 풍습을 갖고 있는 야만스러운 고산족끼리의 다툼에 있다고 했다. 사건 후, 오키나와 출신의 교원 순사가 선주민족 대책에 이용되었다. (……)

과제연구 : 오키나와가 타이완 선주민족 대책에 이용된 이유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²⁴⁾ (굵은 글씨-인용자)

오키나와에서 발행한 부교재는 일본의 타이완 식민통치 때 오키나와 사람이 순사처럼 하급의 지위에 있었다고 밝힘으로써 식민지 타이완에 대한 지배에 가담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1897년부터 직업을 구하려는 오키나와인의 타이완 이주가 시작되었다.²⁵⁾ 1930년 국세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도(道)와 현의 이주자 가운데 아홉 번째로 많은 7,442명(3.3%)의 오키나와

24) 沖縄歴史教育研究会 編, 앞의 책, p.111. 霧社事件과 오키나와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又吉盛清b, 『第7章 台湾霧社事件と沖縄人』, 『大日本帝国植民地下の琉球沖縄と台湾』, 同時代社, 2018 참고.

25) 又吉盛清c, 『台湾支配と日本人』, (株)同時代社, 2018, p.96.

출신자가 타이완에 거주하였다.²⁶⁾ 1929년 세계공황을 전후로 오키나와현 내에서도 타이완과 가까운 야에야마(八重山), 요나구니(与那國)의 몰락한 농민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 등이 주로 이주하였다.²⁷⁾ 이들은 타이완 일본인 사회의 최하층에 분포하며 오키나와 출신자만의 집락(集落)을 이루어 살아가는 경우도 많았다.²⁸⁾ 그래서 오키나와 출신자는 타이완 일본인 사회에서조차 “일본의 생번(生蕃)”, “노소도(老小島)”라 불리며 편견과 차별을 받았다.²⁹⁾

부교재는 타이완에 진출한 오키나와 출신자의 지위와 처지를 고려하며 그들이 타이완총독부에 ‘이용’당했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앞서 간략히 언급한 오키나와인의 만주이민 자체가 전쟁동원의 일부였다는 시각과 일맥상통하는 관점이자 언급이다.

하지만 만주로 이민을 간 오키나와인은 만주국의 오족협화(五族協和) 이념과 사회구조에서 최상층에 자리한 일본인의 일부로서 지배자였다. 마찬가지로 오키나와인은 일본과 타이완 어느 곳의 일본인 사회에서도 분명 차별받는 약자였지만, 타이완 사람에게 그들은 지배자였을 뿐이다. 가령 선주민 교육을 담당한 오키나와 출신 교사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채용될 수 있었다. 결국 부교재의 관점, 곧 ‘이용당했다’는 언급은 오키나와 출신자의 식민책임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교사의 자발성, 능동성을 부정함으로써 가해만이 아니라 피해의 측면도 있음을 적극 부각시키는 기술이다. 달리 말하면 부교재 속의 ‘충대관계’는 피지배자 코스프레의 역사관을 밑바탕에 두고 식민책임을 정면으로 직시하지 않는 역사의식, 그리고 중층적 위치였던 오키나와인의 처지를 정교하면서도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았다.³⁰⁾

26) 臺灣總督府官房調査課, 『施政四十年の臺灣』, 臺灣時報發行所, 1935, p.24.

27) 宮内久光, 『近代期における琉球列島離島の人口變動』, 『金沢大学文学部地理学科報告』 8, 1997, p.130.

28) 集落의 사례는 又吉盛清b, 『第11章 台湾の沖縄人集落跡を訪ねて』, 앞의 책, 참조.

29) 又吉盛清c, 앞의 책, p.96.

30) 때문에 부교재는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이 만주와 함경도로 진군하며 아시아태평양전쟁에 개입한 움직임을 “侵略”이라 규정하고 있다(沖繩歴史教育研究会 編, 앞의 책, p.110). 하지만 소련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개입했으며, 침략을 당한 상황에서

V. 화일(華日)관계에서 대일(臺日)관계로: 센카쿠제도·다오위다오

1945년 10월 25일 중국국민당이 보낸 군대는 타이베이에서 타이완총독과 일본군 제10방면군 사령관으로부터 항복을 접수하였다. 본토에서 일어난 제3차 국공내전에서 밀린 장개석의 중화민국이 1949년 타이완으로 이전하였다. 한편, 194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오키나와에서는 일본군과 미군 사이의 유일한 본토 전투인 오키나와전투가 있었고, 미군이 승리하며 이곳을 점령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그해 12월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있던 미국은 오키나와를 통치하는 군(軍)정부를 대신해 류큐열도 미국 민정부(USCAR)를 설치하였다. 한국전쟁의 와중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한 미국은 일본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키는 한편, 오키나와를 직접 통치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4월 일본인으로 구성된 류큐정부를 설립하였고, 타이완과 일본은 같은 달에 중일화약을 체결하였다. 동아시아에서 냉전이 확대 심화하는 와중에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수직적 군사반공망 속에서 ‘화일관계’가 성립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화일관계’ 속에서 ‘중대관계’는 독립해 있었다. 오키나와가 미국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화민국은 류큐가 일본이 아니며 류큐인이 스스로 조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간교류를 통해 중화민국에 류큐를 귀속하려는 여론 작업을 시도하였다.³¹⁾ 또한 전후 2만인

제2차 세계대전에 개입한 국가이다. 소련의 행동을 침략의 측면에서 보면 파시즘 세력의 침략과 반파시즘 세력의 반침략이란 전쟁의 기본구조도 자체의 사실을 부정하게 된다. 부교재의 역사인식은 일본의 중고교 역사교과서에서도 매우 뿌리 깊다. 관련한 사항은 辛珠柏, 『韓中日三國の高校世界史教科書における第二次世界大戦』, 『歴史評論』 715, 2009.11, ‘제3장’ 참조

31) 八尾祥平, 『琉・華・台・沖』, 陳來辛 北波道子 岡野翔太, 『交錯する台湾認識』, 勉誠出版, 2016, pp.66-69.

의 일본인을 귀환시키지 않고 ‘유용자’(留用者)라는 이름으로 잔류시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복구하는 작업에 동원하였다. 이때 중화민국은 오키나와 출신자를 일본인이라 하지 않고 ‘류큐인’으로 분류하여 철도 관련 업무 등에 종사시켰다.³²⁾ 오키나와의 미군정도 일본 본토와 구별하기 위해 ‘류큐’라 의식적으로 호칭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데탕트 국면이 조성되며 동아시아 정세가 바뀌어 갔다. 그 출발은 미국과 중국의 화해였다. 일본은 여기에 대응하여 1972년 5월 오키나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았다.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이를 ‘일본복귀’라 부르고 있다. 일본은 9월에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타이완의 중화민국과 체결한 중일화약을 폐기하였다. 실질적으로 타이완과 부속도서만을 통치하고 있던 중화민국이 데탕트 국면에서 직격탄을 맞으며 고립되어 갔다.

이즈음부터 타이완의 중화민국, 그리고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사이에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한 외교현안이 있었다. 일본에서 센카쿠제도, 중화권에서 дя오위다오로 부르는 동중국해의 영토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타이완의 대만사 교과서는 1970년대 들어 타이완의 국제지위가 변화하는 내용을 설명할 때 ‘보조풍조’(保釣風潮) 또는 ‘보조운동’(保釣運動)이라는 이름으로 дя오위다오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삼민서국에서 발행한 대만사 교과서의 관련된 언급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二. 국제정세의 변화
- (二) 국제지위와 외교 공간
- 3. 보조풍조

1971년(민국 60년) 미국은 2차대전 후 점령하고 있던 дя오위타이(釣魚臺)를 일본에 넘겨주기로 결정하였다. дя오위타이 부근에는 석유가 매장되어 중요성이 있었다. 타이완해협 양안과 일본측 모두 дя오위타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선포하여 주권 쟁의문제가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타이완·인용자) 정부가

32) 徐正權, 「戰後台灣の鐵道と「琉球人」の留用」, 『法政論叢』 47-2, 2011.

무효임을 항의한 후 국내외에서 보조풍조를 불러일으켜, 국내 학생은 시위행진과 좌담회를 열고, 미국 유학생 또한 연대 항쟁을 함으로써 한 차례 민족주의 풍조가 일어났다.³³⁾

삼민서국의 교과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상단에 ‘보조운동’이란 캡션 제목을 단 사진을 수록하였다. 사진의 설명에 따르면, 1971년 4월 14일 닌오위타이 주권문제에 항의하는 학생 시위대가 타이베이 주재 일본대사관 앞을 지나가고 있는 장면이었다.³⁴⁾ 실제 중화민국은 그해 4월에 닌오위타이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6월에 닌오위타이는 미국과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반환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에 반환되었다.

위에서 인용한 삼민서국 교과서가 사용한 어휘는 그나마 부드럽다고 볼 수 있다. 남일서국의 대만사 교과서는 “주권 침범”에 대해 타이완사회가 “격분”했다며 “해내외에서 형성된 보조운동이 일시 요란했다”고 기술하고 있을 정도다.³⁵⁾

삼민서국과 남일서국처럼 타이완의 모든 대만사 교과서는 닌오위다오가 타이완의 영토라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한국의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기술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서술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연계시켜 빼앗긴 땅이며, 그래서 간도문제와 함께 애국계몽운동기를 서술하는 부분에 배치하는 방식은, 1974, 1975년의 제3차 교육과정에서 중고교에 적용하면서부터 정착하였다.³⁶⁾ 이에 비해 타이완의 대만사 교과서는 동아시아에서 미

33) 薛化元 主編, 『普通高級中學 歷史』第1冊, 三民書局, 2017, p.178. 이유는 알 수 없지만 史記文化的 교과서에는 ‘과강’이 언급한 부분에 닌오위타이를 서술하지 않았다.

34) 타이완 측의 자료를 직접 참조할 때는 닌오위타이(釣魚臺)라 표기하고, 필자가 설명할 때는 닌오위다오(釣魚島)라고 하겠다. 일본측의 입장을 설명할 때는 센카쿠제도(尖閣諸島)라 하겠다.

35) 林能士 編著, 『普通高級中學 歷史』第1冊, 南一書局, 2014, p.173.

36) 자세한 내용은 신주백, 「한국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에 관한 기술의 변화」, 『獨

국이 주도하는 데탕트의 출현과정에서 중화민국의 외교가 고립당하는 현상의 하나로 다오위다오문제를 다루고 있어, 한국의 역사교과서처럼 타이완만의 역사적 맥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의 중고교 역사교과서에는 샌카쿠제도에 관한 서술 자체가 없다. 일본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샌카쿠제도를 둘러싸고 갈등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타이완의 대만사 교과서에서 다오위타이를 기술하기 시작한 때는 101과강, 곧 2012년부터 적용한 교과서가 처음이었다. 101과강은 중화민국의 국제관계와 양안관계가 바뀌는 때를 서술하는 대목에서 외교 고립 과정을 기술함과 아울러 “조어도 주권을 지키려 일어난 보조운동을 서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³⁷⁾ 그렇다면 그 이전의 95과강, 곧 2006년부터 적용된 대만사 교과서에 없던 내용이 왜 2012년 대만사 교과서에서부터 등장했을까?

2010년 9월 7일에 일어난 사건과 그것의 처리과정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중국의 저인망 어선 한 척이 다오위다오 인근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에 걸렸다. 이에 순시선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하던 중국 어선은 일부러 순시선과 충돌하였다. 일본은 어선을 나포한 다음 날 중국인 선장을 구속하였다. 일본 정부의 나포와 범 집행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며 1972년 중일 국교 수립 이래 양국간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랐다.

일본 정부는 갈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원을 모두 석방했지만 선장에게만이라도 법을 적용하려 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침단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일본의 자동차와 전자 업계를 긴장시켰다.³⁸⁾ 또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4명을 간첩혐의로 체포하였다.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의 초강수에 선장을 ‘처분 보류’하고 9월 24일 석방하였다.³⁹⁾

島研究』8, 2010, ‘제2장’ 참조.

37) 教育部, 『普通高級中學課程綱要：歷史課程綱要(中華民國 100年 5月 27日)』, 『行政院公報 - 歷史文化篇』第017卷 101期, 2011.6.1., p.6

38) 『머니투데이』2010.9.23.

갈등은 일단락되었지만, 그 원인을 해소하지 않은 채 봉합하는데 그쳤다. 양국 국민 사이에 격화된 감정 또한 해소하지 못했다. 갈등이 힘겨루기 양상을 띠었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였다.

더구나 미국은 미일안보조약 제5조, 곧 주일미군기지와 일본 “어느 한쪽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의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는 조항의 적용 대상이라며 동아시아 역사문제가 공식 개입하기 시작하였다.⁴⁰⁾ 이제부터 다오위다오문제(센카쿠제도문제)는 일본과 중국, 일본과 타이완의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 연동하는 문제로 바뀌어가면서, 동아시아의 역사문제가 G2의 역학구도 속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즈음부터 해양에서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라고 하면, 독도문제가 아니고 센카쿠제도문제(다오위다오문제)를 가리켰다. 동아시아에서 G2의 한축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이 미국과 직접 만나는 점점지대인 센카쿠제도문제(다오위다오문제)가 독도문제보다 지역의 현안 가운데 비중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 역사갈등의 폭은 매우 크게 확장되었다.

거기에는 2010년 9월의 갈등을 처리하는 과정은 지금까지 서로 ‘판단을 보류한다’는 중일 사이의 암묵적 합의를 부정하였다. 이제부터는 타이완, 중국, 일본이 갈등을 회피하고 주저하기보다 공공연하게 부딪히는데 주저하지 않는 시대, 심지어 무력충돌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었다.⁴¹⁾ 또한 101과강처럼 학교 역사교육의 영역에서까지 영토교육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도 나타났다. 이를 위해 타이완과 중국 모두 고유 영토론의 입장에서 자신의 공식 논리를 정립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2012년에, 중화민국은 2014년에 각각 외교기관을 통해 이를 공표하였다.⁴²⁾

39) 『中·日, 센카쿠 갈등 일지』, 『연합뉴스』 2010.9.24.

40) 『한겨레』 2010.10.30.

41) 이명찬,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간 갈등과 동북아』, 『국제정치논총』 53-1, 2013, p.288.

그런데 닌오위다오문제(센카쿠제도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타이완을 포함해 중화권 전체의 움직임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키나와는 없었다. 여기에다 타이완과 중국이 국가 차원의 역사적 합법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 더구나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지역 질서 재편 움직임과 맞물려 있어 이전에 비해 복잡해지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오키나와의 존재감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오키나와 또는 오키나와인의 존재감 부재는 여러 곳에서 내는 목소리 때문만이 아니라 침묵 때문에도 더더욱 가중되었다.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영토갈등이 없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오키나와의 부교재처럼 『일본사A』, 『일본사B』 교과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키나와에서 발행된 신정판(2010), 3정판(2017) 부교재도 오키나와인의 삶의 조건과 직접 연관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을 정도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화일관계’가 ‘중일관계’처럼 ‘대일관계’로 전환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충대관계’ 자체를 형성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오키나와인만의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가령 오키나와대학에서 역사를 연구한 아라사키 모리테루 교수의 주장을 들 수 있다. 그는 “추상적·관념적인 ‘고유의 영토론’을 보류하고, 이 지역들을 역사적·문화적·경제적 생활권으로 삼아 온 사람들의 이야기의 장(場)을 통해서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장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검토하고 공존권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았다.⁴³⁾ ‘생활권’에 관한 그의 주장은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일 수는 있으나, 타이완, 일본, 중국 3자 모두 고유영토론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설 땅

42)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钓鱼岛是中国的固有领土(2012.9.25.)』; 『釣魚臺列嶼主權聲明(2014.2.5.)』

43) 아라사키 모리테루 지음, 백영서·이한결 옮김, 『오키나와, 구조적 차별과 저항의 현장』, 창작과 비평사, 2013, p.124.

을 찾기 쉽지 않다.⁴⁴⁾ 그래서 생활권론에 입각한 주장을 교과서에 반영하려면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대만사 교과서와 오키나와의 부교재,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생활권을 말하기에 앞서 다표문제(센카쿠제도문제)가 영토문제이면서 동시에 역사문제라는 본질적 성격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면서 비슷한 성격인 독도문제(다케시마문제), 남쿠릴열도문제(북방영토문제), 남중국해 일대 섬들의 영유권문제도 있으므로 ‘연동하는 동아시아’라는 시야에서 함께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⁴⁵⁾ 이들 문제는 양자관계를 축으로 풀어가야 하지만, 다자관계를 고려해야만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국사의 틀을 상대화할 수 있는 동아시아 차원의 다자간 관계의 역사구조화를 시도하여 지역으로서 동아시아 인식을 공유하고, 학교교육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반복하여 전달할 수 있게 보장받을 때 이 문제들 속에서 ‘충대관계’도 복원할 여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VI. 맺음말

이상으로 오키나와와 타이완에 거주하는 사람이 직접 관계된 역사적 경험 가운데 역사교재에 언급된 세 가지를 사례로 들어 서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충대관계’의 상호인식과 변화를 확인하고, ‘연동하는 동아시아’라는 측면에서 시선의 상대화를 시도할 수 있

44) 더구나 생활권과 주권의 관계, 생활권에 대한 중국의 입장, 그리고 생활권의 실현과 과거사청산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고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신주백, 『서평 : 응축된 날카로움과 신선험, 그리고 우려스러움 : 구조적 차별과 저항의 현장, 오키나와(창작과비평사, 2013)』, 『동북아역사논총』 42, 2013.12, pp.227-229.

45) 영토문제의 상호 연동성과 접근전략에 관해서는 신주백, 『역사화해와 동아시아형 미래 만들기』, 선인, 2014, pp.375-399 참조.

는 여지를 탐색해 보았다.

‘충대관계’는 1871년의 표류민 사건을 기점으로 ‘화구관계’에서 ‘화일관계’로 이행하였다. 타이완과 오키나와의 역사교재는 이때의 관계 전환에 대해 중앙의 통치논리에 포섭되는 과정에서 서로 주목하는 지점을 달리 보고 있으며, 각자의 맥락을 반영한 기억만을 자국사의 틀에서 녹아내고 있다. 자국사의 중앙 중심사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연동하는 동아시아’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1871년의 사건을 책봉-조공질서를 만국공법 질서로 대체함과 동시에 일본의 침략이 구체화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오키나와와 타이완은 지배와 피지배관계로 바뀌었다. 일본인 사회의 하층을 형성하는 오키나와 사람도 타이완에서는 지배자였지만, 오키나와에서 발행한 부교재는 자신을 피동적인 존재처럼 부각시키고 있다. 이때의 ‘충대관계’에 관한 기억은 이 지점에서만 남아 있었다. 타이완과 일본의 자국사 교재는 이조차 각자 다른 이유로 그 관계를 배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이란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얼마나 철저하면서도 정교하게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느냐에 따라 배제한 ‘충대관계’는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45년 10월부터 타이완총독부는 중국국민당에 타이완의 지배권을 이양하였다. 이때로부터 독자적인 ‘충대관계’가 살아나는 듯 했지만, 1970년을 전후하여 동아시아 정세가 양극화에서 다극화로 바뀌어 가는 와중에 타이완은 외교적으로 고립당하였다. 동아시아 정세가 긴장완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등장한 새로운 이슈가 닌자위다오문제(센카쿠제도문제)였다. 특히 2010년 동중국해에서 일어난 충돌사건을 계기로 중일(中日) 또는 대일(臺日) 사이에 공공연한 충돌도 주저 없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이 지역의 역사문제에 공식 개입하기 시작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이란 G2를 중심으로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흐름 속에 이 문제가 빨려 들어갔다. 여기에 대응하여 관련 국가들은 고유영토론에 입각하여 그 갈등을 정당화하는 역사교육을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일관계’가 ‘대일관계’로

이행하는 도중에 일어난 영토갈등이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과 맞물리며 더욱 복잡하고 예민해지면서 ‘충대관계’는 사실상 사라졌다. 결국 영토갈등을 둘러싼 ‘충대관계’의 복원은 역사문제라는 관점을 영토갈등에 적용하며 양자관계를 축으로 모색을 지속하면서도 다자협력을 통해 마무리하는 접근방식이 역동적으로 작동할 때 풀어질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대일관계’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하나의 관계요소로 자리를 잡고, 더 나아가 독립변수화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충대관계’의 역사적 재해석 과정에서 ‘대일관계’를 재해석할 수 있을 만큼 나아가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역내 다자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충대관계’의 전면화, 곧 접경지에 점이지대(漸移地帶 transition belt)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된 완충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논문투고 : 2018. 06. 28, 논문심사완료 : 2018. 07. 26, 게재확정 : 2018. 07. 30)

참고문헌

1. 자료

『머니투데이』 『한겨레』 『國語日報』 『臺灣時報』 『三立新聞網』 『自由時報』 『中國時報』

戴寶村 編著, 『普通高級中學 歷史』 第1冊, 龍騰文化, 2015.

賴澤涵 主編, 『普通高級中學 歷史』 第1冊, 全華圖書, 2017.

閻沁恆 主編, 『普通高級中學 歷史』 第1冊, 史記文化, 2013.

吳學明 主編, 『普通高級中學 歷史』 第1冊, 翰林出版, 2017.

林能士 編著, 『普通高級中學 歷史』 第1冊, 南一書局, 2014.

陳豐祥 主編, 『普通高級中學 歷史』 第1冊, 泰宇出版, 2017.

鄭政誠 趙祐志 編著, 『普通高級中學 歷史』 第1冊, 康熹文化, 2015.

薛化元 主編, 『普通高級中學 歷史』 第1冊, 三民書局, 2017.

老川慶喜 외 10인, 『詳說 日本史B 改訂版』, 2017, 山川出版社.

新城俊昭, 『高等学校 琉球・沖縄の歴史と文化』, 編集工房 東洋企画, 2003.

新城俊昭, 『新訂版 高等学校 琉球・沖縄の歴史と文化』, 編集工房 東洋企画, 2010.

沖縄歴史教育研究会 編, 『三訂版 高等学校 琉球・沖縄の歴史と文化』, 編集工房 東洋企画, 2017.

國立教育院, 『107學年度普通高級中學教科用書一覽表 第一學期用書更新』.(검색일: 2018. 5.20.)

中華民國 教育部, 『普通高級中學課程綱要：歷史課程綱要(中華民國 100年 5月 27日)』, 『行政院公報 - 歷史文化篇』 第017卷 101期, 2011.6.1.

中華民國 外交部, 『釣魚臺列嶼主權聲明(2014.2.5.)』

臺灣總督府官房調查課, 『施政四十年の臺灣』, 臺灣時報發行所, 1935.

日本出版勞動組合聯合會, 『教科書レポート』 60, 2017.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钓鱼岛是中国的固有领土(2012.9.25.)』

2. 논문

- 신주백, 「한국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에 관한 기술의 변화」, 『獨島研究』 8, 2010.
_____, 「記憶 葛藤과 ‘臺灣人’으로서 正體性 찾기-高校 ‘臺灣史’ 教科書問題를 中心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74, 2018.
이명찬,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간 갈등과 동북아」, 『국제정치논총』 53-1, 2013.
河世鳳, 「臺灣歷史의 망각과 기억-중학교 역사교과서 ‘認識臺灣’의 認識」, 『釜山史學』 38, 2000.

- 徐正樺, 「戰後台灣의 鐵道と「琉球人」의 留用」, 『法政論叢』 47-2, 2011.
辛珠柏, 「韓中日三國의 高校世界史教科書における第二次世界大戰」, 『歷史評論』 715, 2009.
宮內久光, 「近代期における琉球列島離島の人口變動」, 『金沢大学文学部地理学科報告』 8, 1997.
八尾祥平, 「琉・華・台・沖」, 陳來辛 北波道子 岡野翔太, 『交錯する台湾認識』, 勉誠出版, 2016.

3. 저서

- 신주백, 『역사화해와 동아시아형 미래 만들기』, 선인, 2014.
아라사키 모리테루 지음, 백영서, 이한결 옮김, 『오끼나와, 구조적 차별과 저항의 현장』, 창작과 비평사, 2013.
又吉盛清a, 『台湾支配と日本人』, 同時代社, 1994.
又吉盛清b, 『大日本帝国植民地下の琉球沖繩と台湾』, 同時代社, 2018.
又吉盛清c, 『台湾支配と日本人』, (株)同時代社, 2018.
朱德蘭, 『臺灣沖繩交流史論集』, 遠流出版公司, 2016.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타이완과 오키나와 사람 서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각자의 역사교재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충대관계’(沖臺關係)의 변화와 함께 ‘연동하는 동아시아’라는 측면에서 시선을 상대화할 여지를 찾아보았다.

‘충대관계’는 1871년의 표류민 사건을 기점으로 ‘화구관계’(華球關係)에서 ‘화일관계’(華日關係)로 이행하였다. 타이완과 오키나와의 역사교재는 이때의 관계 전환에 대해 중앙의 통치논리에 포섭되는 과정에서 서로 주목하는 지점을 달리 보고 있으며, 각자의 맥락을 반영한 기억만을 자국사의 틀에서 녹아내고 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책봉-조공질서를 만국공법 질서로 대체함과 동시에 일본의 침략이 구체화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타이완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며 오키나와의 관계도 지배와 피지배관계로 바뀌었다. 일본인 사회의 하층을 형성하는 오키나와 사람도 타이완에서는 지배자였지만, 오키나와에서 발행한 부교재는 자신을 피동적인 존재처럼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에 타이완과 일본의 교과서에서 ‘충대관계’는 사라졌다. 과거사 청산의 철저하고 세밀한 접근 속에서만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전후 독자적인 ‘충대관계’를 형성해 갔지만, 타이완은 1970년을 전후하여 동아시아 정세가 다극화로 바뀌어 가는 와중에 고립당하였다. 이즈음부터 등장한 새로운 이슈가 닌카쿠제도문제(센카쿠제도문제)였다. 이 문제는 2010년 동중국해에서 일어난 충돌사건을 계기로 공공연한 충돌이 일상화하고 지역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G2의 움직임에 빨려 들어갔다.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과정에서 오키나와 사람의 목소리는 없었다. ‘화일관계’에서 ‘대일관계’로 이행하는 도중에 ‘충대관계’는 실종되어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충대관계는 역사문제라는 관점을 견지하며 다자협력으로 마무리할 때 복원할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

주제어 : 동아시아, 접경지, 상호인식, 역사교과서, 충대관계, 닌카쿠제도문제, 센카쿠제도문제

• Abstract •

Mutual Recognition of the Okinawa and Taiwan borderland and East Asia

Sin, Ju-back

This study examines how people in Okinawa and Taiwan remember their own historical experiences in their historical textbooks. In the process, we have confirmed the status and mutual recognition of the Okinawa-Taiwan Relations and tried to relativize them through the perspective of Northeast Asia as a region.

Okinawa-Taiwan Relations moved from China-Ryukyuu Relations to China-Japan Relations, starting with the drifting incident of 1871. In the process of being involved in the logic of central government, the points of attention differed, and only memories reflecting their context remained. As Japan won the Sino-Japanese War in 1895, Okinawa and Taiwan changed into Rule and cover rule relations. The Okinawans who form the underpinnings of the Japanese society were also rulers in Taiwan, but the auxiliary textbooks published in Okinawa are making themselves as passive. On the other hand, in the Taiwanese textbooks of Taiwan history, Okinawa disappeared.

Since October 1945, the Taiwan Government Administration Office has transferred Taiwan's dominance to Chungkuo Kuomintang. As the situation in East Asia changed from polarization to multipolarity around 1970, Taiwan was diplomatically isolated. The new issue that emerged from nowadays was the Senkaku-shotō problem and the Diaoyudao problem. This problem turned into an open conflict in tacit agreement with the 2010 conflict. The voice of the Okinawan people was not heard, and the Japanese government stood up against nationalization measures. Regardless of the independence tribal government and the unified tribal government, it is required to describe it in Taiwanese textbooks from the perspective of its own territory. China-Japan Relations is now very unstable, but it is transitioning to Taiwan-Japan Relations.

Key word : East Asia, Borderland, Mutual Recognition, History Textbooks, Okinawa-Taiwan Relations, Senkaku-shotō Problem, Diaoyudao Problem.